

“배움의 갈망 있는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아산장학생들(앞줄)과 아산재단 이사들, 내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뒷줄 왼쪽부터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한승주 이사,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김명자 이사, 김갑유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이흥구·김종인 이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김태현·김유후·이춘림 이사, (뒷줄 오른쪽부터) 최재성·이승규·정진규 이사, 최종원 감사.

아산재단은 지난 2월 26일 서울아산병원에 자리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9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이흥구·이춘림·장정자·김종인 이사 등 아산재단 관계자와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박영국 경희대 총장대리, 각 대학 및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 입은 대원)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은 1977년 아산재단을 설립하시면서 끼니를 잇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사람,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 학자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청소년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할 일이라고 하셨다.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신 아버님은 교육이라고는 서당 3년과 초등학교 3년을 다니신 게 전부였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은 대단히 높으셨기 때문에 재단 설립 직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면서 “오늘은 대학생 770명, 고등학생 500명,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26명 등 총 1,29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아버님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보면 동네 구장 댁에 배달되던 동아일보를 동네 어른들이 다 돌려보고 난 뒤에 빼놓지 않고 얻어 보셨다고 한다. 신문에 연재되던 이광수의 소설 <흙>의 주인공 허송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도 당시 변호사시험인 보통고시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애석하게도 합격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선친인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를 회고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에 수록된 ‘인생을 잘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재산 많은 부자면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전심전력으로 이루어내며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언제나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소개



축사를 하고 있는 김갑유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한 뒤 “아버님 말씀대로 장학생 여러분도 현재에 충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바란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배움의 갈망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봐, 뭐든지 하면 일등 해”

축사는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인 김갑유(57)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대구 능인고 1학년이던 1978년에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면서 집안사정이 어려워졌지만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돼 학비 부담 없이 고등학교를 마쳤고,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데 이어 40대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의 최연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장학증서 수여식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는데 정주영 설립자님께서 직접 참석해 축사도 하시고 장학생 20여 명에게 증서도 전달해주셨다. 설립자님이 제게 장학증서를 건네실 때 어깨를 톡 치시며 건넸 “이봐, 뭐든지 하면 일등 해” 라는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저는 현재 스포츠 분야의 IOC나 FIFA 같은 조직으로서 세계 최대규모인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 직을 맡고 있다. 시골 학생이던 제가 아산장학생이 된 후 설립자님의 말씀대로 진짜 일등이 된 것이다. 오늘 아산장학생에 선정되면서 이미 일등이 된 장학생 여러분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①정몽준 이사장이 아산장학생들의 자치 모임인 정담회 임원진과 함께했다. ②성적우수장학생과 다숨장학생 대표에게는 이홍구 아산재단 이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오른쪽부터 안지은(연세대 사학과2) 다숨장학생, 이진성(고려대 수학과3) 성적우수장학생.

“아산장학생으로서 자부심 느꼈다”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학 사업을 펼쳐 온 아산재단은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대학생 770명, 고등학생 500명,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26명 등 총 1,296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130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74명, ‘성적우수장학생’ 179명, 신체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숨장학생’ 36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포함됐다. 강우린(경희대 철학과2) MIU 자녀 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돼 매우 기쁘며,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하늘(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4) 재능나눔장학생은 “장학생 대표로 이사장님과 재단 이사님들을 직접 뵈면서 아산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재단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주어 무척 고마웠다”며 뿌듯해했다.


다숨장학생과 나래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외에 생활비(매월 2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층 대

학생 생활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 나래장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아산장학생들과의 다양한 교류도 기대된다”며 고마워했고, 독일어를 전공하는 다숨장학생 한 명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김갑유 변호사의 축사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정주영 설립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봐, 뭐든지 하면 일등 해’라는 조언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산재단은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 500명도 선발했다.

또한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18명, 해외 8명 등 총 26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표 학생으로 장학증서를 받은 정수현(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공학 박사과정) 장학생은 “아산재단에서 의생명과학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의생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3만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9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사말과 축사 전문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